

중등 예비체육교사의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메타포 분석

김승용*

동서울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A Metaphor Analysis on the Learning-Centered Class of Pre-Service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eung-Yong Kim*

Professor, Dept. of Leisure Sports, Dong 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등 예비체육교사들이 배움중심수업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메타포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체육수업 중 배움중심수업의 적용에 대하여 인식을 점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인식을 메타포로 표현하는 설문 조사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메타포 분석방법론에 따라 코딩, 메타포 분류, 분석단위 결정, 표본의 범주화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되었다. 그 결과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사 교육 및 역할이라는 4개의 대분류와 자아실현을 위한 수업,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수업,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개방적이고 다양한 수업, 호기심 자극 및 흥미 유발 수업, 개인의 발달 및 특성에 적합한 수업,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수업, 교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수업의 8개 내용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배움중심수업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그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 중등, 예비체육교사, 배움중심수업, 메타포, 구성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that pre-service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tach to learning-centered teaching through metaphor analysis and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the application of learning-centered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express the perception of learning-centered teaching in metaphors. The data analysis was processed through the process of coding, metaphor classification, determining the unit of analysis, and categorisation of the sample according to the metaphor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our major categories of educational needs,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teacher education and roles, and eight content types were derived: lessons for self-actualisation, lessons for preparing for future society, lessons that foster creativity, open and diverse lessons, lessons that stimulate curiosity and interest, lessons that are suitable for individu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lessons that are burdensome to implement, and lessons that require teacher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earning-centered class.

Key Words : Secondary school,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Learning-centered class, Metaphor, Constructivism

*Corresponding Author : Seung-Yong Kim(ksy@du.ac.kr)

Received July 18, 2023

Accepted August 20, 2023

Revised July 26, 2023

Published August 28, 2023

1. 서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역량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일부 문제점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한 적응력은 물론 문제해결능력 및 협동 능력이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공감 능력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의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적 능력, 실행 능력 및 협동 능력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중심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움중심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이다. 즉,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배움중심수업이다. 특히, 과거에는 지식을 빨리 암기하고, 남의 지식을 잘 모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1]. 그러나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은 지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최근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모방하는 인재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는 암기형 학습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지식의 범위와 시대의 전환은 우리에게 수업에 대한 관점과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배움중심수업은 브루너[2]의 학습자 모형에 기반을 둔다. 브루너는 학습자에 대해 교사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의 구조, 방법 등을 탐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였다[2]. 학습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며,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을 보완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이 수업의 주체라는 배움중심수업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브루너에 따르면 지식은 고정된 교수적인 권위의 산물이 아닌 논쟁과 구성, 증거의 산물이다[2]. 지식은 타인과의 교섭, 협력, 의견교환을 통해 조율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되는 것이며, 배움중심수업에서도 이러한 타인과의 소통이 지식 습득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브루너의 지식 관점도 배움중심수업의 철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브루너는 개인이 지식을 습득할 때, 타인과 함께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발견하며, 각자의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지식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배움중심수업에서도 지식의 인식과 획득을 타인과 함께하는 협동적인 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은 참된 학습의 방향으로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배움중심수업은 고정된 개념과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교육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움중심수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넘어 삶의 공간인 지역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3,4].

Bray and McClaskey[5]는 개인화 학습환경(PLE, personalized learning environment)을 1단계-교사 중심(teacher-centered) 교육, 2단계-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 교육, 3단계-학습자 주도(learner-driven) 학습이라는 3단계로 구분하고 이 중에 학습자 주도 학습을 학습자 주도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활동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학습동기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성'이란 하나의 교육적 이상을 말하며 소크라테스에서 로크(Locke)와 루소(Rousseau), 페스탈로찌(Pestalozzi), 그리고 듀이(Dewey)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주장되어왔다.

Robinson and Aronica[6]는 '학습'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학습하는 유기체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에 대한 욕구가 왕성하게 생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욕구는 학교에 다

니면서부터 점차 감소하거나 무더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시켜주는 일이야말로 '교육 혁신'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 기능,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 기능,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7].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구성주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학습자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이론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8]. 따라서 '구성주의'는 간단하게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이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9-12].

배움중심수업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구성주의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지식이 구성된다는 이론으로, 구성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 외에도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 경험,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좋은 수업들의 공통 요소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연구[13]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전달 관점에서 평가되었던 '좋은 수업'들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체육수업에서도 창의·지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반성적·성찰적인 사고 능력과 지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높은 차원의 분석과 지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방식이 절실하다. 나아가 습득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또는 동료 등과 함께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및 체육수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신장시키며 교육 공동체로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체육수업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특성에 따른 자기발전 및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배움중심수업을 체육과 수업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사의 역할과 책무성, 수업 전략 및 역량평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14,15].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

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지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움중심수업이 체육과 수업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체육교과는 이러한 수업 운영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이 배움중심수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메타포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체육수업에 창의·지성 교육을 위한 배움중심수업 적용에 대하여 인식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인식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지성 교육의 실천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창의·지성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기초자료의 제공 및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등 예비체육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120부의 질문지 중 10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하거나 분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질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100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of study subjects (N=100)

Classification	Content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82	82
	Female	18	18
Pre-teacher form	Teacher class	45	45
	Non-educational class	22	22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33	33

2.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중등 예비체육교사가 가지는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메타포를 묻고자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즉,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은유(metaphor)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은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지에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메타포 분석 연구방법은 특정 집단의 사고유형을 분석하는 접근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언어와 언어적 은유를 수집하고 범주화하여 사고유형을 발견하는 분석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주제나 현상에 대한 집단의 사고 방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은유 이론[14]에 근거하여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메타포 표현을 질문하고 메타포로 표현한 이유를 확인할 질문을 구성하였다. 메타포 분석을 위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배움중심수업은 ~ (이)다.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완성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질적 자료이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 및 분석하기 위해 메타포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Moser[15]에 따르면 메타포 분석은 내용 분석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질적연구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각의 메타포 관계에서 응답자들이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을 범주화하여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나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시로 수행되었으며 질문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의 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2.3.1 코딩 및 명명 단계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하여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질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메타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코드화 하였다.

2.3.2 메타포의 분류 단계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특징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메타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 요소로서는 크게 주제(topic), 비유된 용어(vehicle), 주제와 용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이유(ground)에 대한 3가지 측면에서 심층 접근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에서 메타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 범주화가 힘든 경우, 독특한 표현으로 인한

이해 불가능의 경우 등은 제외를 시켰다.

2.3.3 분석단위 결정 단계

메타포의 특징을 개념적 주제로 조직화하기 전에 분석단위에 대해서 2인의 교육학 전공자와 브레인스토밍을 하였다. 그리고 메타포 분석에서는 초기에 범주화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적인 요소와 유사성을 찾았다. 이를 통해 서로 같은 의미의 메타포를 묶어 하나의 범주로 형성하고, 그 범주 내에서 반복되거나 자주 쓰이는 용어를 개념적 주제로 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분석한 자료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메타포 이용에 따른 사고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포는 같으나 그 이유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범주화로 구분하였다.

2.3.4 표본 편집과 범주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설문지를 재검토하고 각각의 범주를 대표하는 특징을 찾아내어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해 재검토하였으며 범주화가 체계적으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자가 범주화한 내용과 주제어는 3인의 스포츠교육학 전공자들과 토의하여 의견 일치의 과정을 통해 재분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용유형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등 예비체육교사들의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메타포 분석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토대로 대분류의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준에 따라 범주화 작업을 거쳐 개념적 주제를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비체육교사들은 배움중심수업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관점, 교수자 관점, 학습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접근에 기초한 각각의 메타포들은 4개의 대분류와 8개의 내용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2).

3.1 교육의 필요성

3.3.1 자아실현을 위한 수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다양한 생각

Table 2. Classification of metaphors for learning-centered instruction class (type and frequency)

Classification	Content type	Metaphor	N
Need for education	Classes for self-realization	diet, jumping box, appointment, employment examination, license, self-development (4), obstacle, weight control	11
	Classes to prepare for future society	national power, trees, dams, weapons, real estate, hydrogen vehicles (2), food, finance, savings, savings, electric vehicles (2), stocks, startups, investments	16
Objectives and contents of education	Classes that foster creativity	lego (2), art, twenty questions, new product, laboratory, research center, music, light bulb, gramophone, fluorescent light (3)	13
	Open and diverse classes	flowers (2), amusement park (3), playground, sea, social media, arboretum, space, playground, nature, sky	13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Classes that stimulate curiosity and stimulate interest	snack, cave(2), magic, rainbow, maze, gift, blind date, spaceship, submarine (2), toy, jungle, exploration (2)	15
	Classes suitable for individu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health checkup, military uniform, tailored clothes, volunteer work, buffet, role play, vaccination, position, perfume, cosmetics	10
Teacher education and role	Difficult classes to practice	sandcastles, bungee jumping, penalties, hospitals, wounds, rock climbing, vaccinations, tooth decay, herbal medicine	9
	Classes that require teacher creativity and ingenuity	game, dream, spirit of challenge (2), imagination, bag of thoughts, new product, animation, artwork, creativity (3), abstract painting	13

들 가운데 배움중심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여 그들의 관심사나 능력을 발휘하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적인 형태의 수업이라 인식하고 있었다[18].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범주화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자기개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며 학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애물: 기존의 교육 방식과 달리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필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행,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파생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나 학생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가지는 분야를 선택하여 직접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스스로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3.2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수업

배움중심수업은 미래 사회의 대비를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강화 등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범주화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부동산: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움도 결국 자산으로 남아, 자신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에서 자산을 획득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수소차: 배움중심수업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과 철학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과 창의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 교육의 목표 및 내용

3.2.1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19]. 이러한 경험과 노력이 쌓이면 학생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레고: 레고는 간단한 블록들을 조립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배움중심수업도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
- 형광등: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내주기 때문이다. 배움중심수업도 어둠을 밝혀주고,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2 개방적이고 다양한 수업

배움중심수업은 학생들이 참여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능력에 따라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다양한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범주화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바다: 바다는 넓고 깊이가 깊어 어디로든지 항해를 할 수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항로를 찾아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배움중심수업은 다양한 학습경로, 흥미로운 학습 내용 등을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우주: 끝없이 넓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환경

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은 학생의 흥미와 성향을 고려하여 학습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3.3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3.3.1 호기심 자극 및 흥미 유발 수업

흥미를 유발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무기력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20].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호기심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배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적인 측면에서 호기심 자극 및 흥미 유발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마술: 마술이 상대방을 홀릴 수 있는 매력과 놀라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탐험: 학생들이 스스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색해 나가기 때문이다. 마치 탐험가들이 새로운 대륙이나 지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해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배움중심수업은 다양한 체험 및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원리와 개념을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끊임없이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2 개인의 발달 및 특성에 적합한 수업

배움중심수업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움중심수업은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흥미와 동기부여가 더욱 증진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 및 특성에 적합한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범주화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역할 놀이: 역할 놀이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추어 역할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화장품: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건강과 미용에 좋다. 즉, 배움중심수업도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과 사고, 독립적인 학습역량 등 다양한 능력을 함께 발달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각각의 학생은 고유한 특성과 학습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적극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습을 진행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 교사 교육 및 역할

3.4.1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수업

배움중심수업이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많은 수업이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21]. 이러한 기존의 학습 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유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 교육 및 역할적인 측면에서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수업이라는 내용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모래성: 일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래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조금씩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래성을 만들어낸다는 과정에서 배움중심수업과 유사하다.*
- *충치: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아플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 수업의 목표와 의의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적극적인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익

숙 해져서 협업이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을 덜고 이 수업을 즐겁게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2 교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수업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학습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수업이라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범주화된 예비체육교사들의 메타포와 그 이유에 대한 예시이다.

- *도전정신: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창의력: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배움중심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들의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메타포 표현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배움중심수업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움중심수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학생들을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

다. 마찬가지로 배움중심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선택하고, 함께 공부하며 동창적인 방식을 통해 학습을 이루어 낸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및 협력 실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를 완성해 나가며, 학문적 향연을 선사한다.

배움중심수업과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주로 학습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수업의 구조, 평가 방식 그리고 협력적 학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역할을 보면 기존의 수업 방식은 주로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배움중심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지식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교사의 역할을 보면 기존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서 주로 강의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배움중심수업에서 교사는 학습 가이드 및 코치 역할을 하여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셋째, 수업 구조를 보면 전통적 수업 방식은 교사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 형태였다. 하지만 배움중심수업은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속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 및 교육 전략을 사용한다. 넷째,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는 시험, 퀴즈 등 정형화된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판단했다. 그러나 배움중심수업에서는 시험 외에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과제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과 성장을 평가한다. 다섯째, 협력적 학습을 살펴보면 배움중심수업은 학습자들간 협력적 학습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 협력,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기존 수업 방식에서는 이러한 협력적 학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편 기존 수업 방식과 비교했을 때,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점에서 배움중심수업이 불리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을까? 기존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배움중심수업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 또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만큼, 교사의 강력한 지도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에 노출되며, 이를 필터링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을 수 있다. 또한, 학

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만큼, 일부 학생들은 학습에 불안감을 느끼고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제도적 지원으로 극복될 수 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등의 학습전략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배움중심교육 접근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업 능력 개발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성주의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인 배움중심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움중심수업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학습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만들어줘야 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문제해결 능력을 고려한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자 교육이 필요하다. 배움중심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촉진하고, 학습 방법을 디자인하고, 학습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 리더십과 지원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지원은 배움중심수업을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배움중심수업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 평가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배움중심수업은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만든 프로젝트, 과제물, 포트폴리오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적인 학습환경이 필요하다. 배움중심수업은 상호작용과 협력적인 학습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소그룹 활동, 프로젝트, 게임 등으로 구축될 수 있다.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은 학

생들의 창의성 교육, 맞춤형 학습, 협력과 소통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학습 결과에 대한 산출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학습 경험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주지해야 할 부분임을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인프라와 시스템의 구축,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Watkins, C. (2009). Learner in the driving seat. *School Leadership Today*, 1(2), 28-31. DOI : 10.4018/978-1-5225-1689-7.ch001
- [2] Bruner, J.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3] Nussbaum, M. C. (2010).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4] Gray, A. (1997). *Constructivist Teaching and Learning*, SSTA Research Centre Report#97-07. Retrieved from: <http://saskschoolboards.ca/research/instruction/97-07.htm>
- [5] Bray, B., & McClaskey, K. (2016). *How to personalize learning: A practical guide for getting started and going deeper*. California: Sage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www.personalizelearning.com/2016/01/continuumof-voice-what-it-means-for.html>
- [6] Robinson, K., & Aronica, L. (2015). *Creative schools: Revolutionizing Education from the Ground Up*. London: Penguin UK.
- [7] Lea, S. J., Stephenson, D., & Troy, J. (2003). Higher education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 centered learning: Beyond 'educational bulimia'?.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8(3), 321-334. DOI : 10.1080/03075070309293
- [8] Paris, C., & Combs, B. (2006). Lived meaning: What teacher mean when they say they are learner-centered. *Teachers and Teaching*, 12 (5), 571-592. DOI : 10.1080/13540600600832296
- [9] Brooks, J. G., & Brooks, M. G. (1999). In Search of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10] Duffy, T. M., & Tobias, S. (2009). *Constructivist theory applied to instruction: Success or failure?*. NY: Routledge. DOI : 0.4324/9780203878842
- [11] Fosnot, C. T. (1996). *Constructivism: Theory, perspectives and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12] Lave, J., & Wegn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an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 10.1525/ae.1994.21.4.02a00340
- [13] Zemelman, S., Daniels, H., & Hyde, A. (2005). *Best practice, Today's standard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merica's schools (3rd ed.)*. Pormouth: Heinemann.
- [14] Ahn, A., & Jeon, J. (2019).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al Model on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9(2), 746-752.
- [15] Gao, Z., & Zhang, T. (2020). Learning-centered physical education and student motivation revisited: Two decades in retrospec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9(4), 404-413.
- [16]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7] Moser, K. S. (2000). Metaphor analysis in psychology - method, theory, and fields of application.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On-line Journal]*, 1(2). Retrieved from: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index.php/fqs/article/view/1090/2387>
- [18] Bonwell, C. C., & Eison, J. A. (1991). *Active Learning: Creating Excitement in the Classroom*.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s, 1-19.
- [19] Blaschke, L. M. (2012). Heutagogy and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heutagogical practice and self-determined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3(1), 56-71.
- [20]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21] Johnson, R. B., & Onwuegbuzie, A. J.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er, 33(7), 14-26.

김 승 용(Seung-Yong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박사)
- 2023년 3월~현재 : 동서울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 E-Mail : ksy@du.ac.kr